

‘은퇴자금’ 4억이 필요하다는데...

월 10~40만원 소액투자로 연금 늘려보자

내게 맞는 노후연금 재테크 전략

노후생활을 위해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 최근 한 증권사는 “2인 최저생활비를 기준으로 25년 뒤 은퇴를 계획하고 있는 투자자가 필요한 은퇴자금 규모는 4억원 수준”이라며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의 도움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월 60만 원을 노후대비용으로 저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월 60만 원을 노후대비만을 위해 저축에 투자할 수 있는 가계가 많지 않다는 점. 바로 생활비와 자녀교육비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의 65%가 생활비와 자녀교육비로 인해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용 장기펀드(소장펀드)가 예상했던것만큼의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유자금을 가진 투자자를 중심으로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상품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우리사회가 이미 고령화시대에 돌입했다”며 “월 10~40만원 가량의 소액을 투자상품으로 돌려 연금을 증가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연금보험은 성격에 따라 세제 혜택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장단점을

연금보험

복리이자·예금자 보호

증장년층에 인기

변액보험

장기투자 고수익 겨냥

젊은층·직장인 선호

고려해 특성을 따져야한다. 소득공제 연금저축보험, 비과세 연금보험, 펀드투자 변액보험 등 ‘연금기능’이라는 본질은 같더라도, 세제상 실익이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자산 편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일반 연금보험은 손해 없이 안전하게 연금액을 늘려야 하는 증장년층에게 적금 같은 은행권 저축상품보다 훨씬 유리한 재테크다. 장점은 복리이자와 예금자보호, 또 공시이율 상품으로 수익률 손해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매우 안정적인 상품이라는 것. 소득공제의 혜택은 없지만 10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을 받

■ 각종연금보험비교표

	변액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공시이율연금보험
운용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보험사
수익	투자수익	공시이율	공시이율
소득공제	X	O	X
비과세	O	X	O
투자수익보증율	120%~300% (스텝업상품/구간달성시)	최저금리적용보증	최저금리적용보증
예금자보호	X	O	O

- 일반연금보험: 리스크의 최소화를 추구하는 안정성 위주의 투자자나 장년층
- 연금저축보험: 소득공제 혜택을 노리는 20~40대 직장인
- 변액연금보험: 아직 경제활동을 할 기간이 많아 장기유지가 가능하고 고수익 선호 20~40대

아 연금 수령시 세금을 내지 않으며 증도해약 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다.

연금저축보험은 연말정산으로 세테크에 강점이 있다. 연금보험 중 세액공제가 되는 유일한 상품이다.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 연 400만원납입시, 52만 8000원을 세금환급 받을 수 있고 유배당상품으로 통상적으로 총 납입보험료의 약 5% 정도를 배당 받을 수 있다. 예금자보호 기능도 존재한다. 공시이율 적용 금리연동형 상품은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변액보험처럼 투자로 인한 손해를 입을 확률이 없고 복리이자로 가능하게 저금같은 은행 저축상품들보다 장기투자시 높은 수익이 가능하다.

변액연금보험은 장기투자로 고수익을 노리는 젊은층과 직장인에게 유리하다. 채권과 주식에 투자한 수익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결정되는 보험 상품으로 일반 연금보험보다 더 높은 연금수령액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주식시장이 불안할 때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존재한다. 변액연금보험 상품은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연금으로 수령 시 원금의 100%~300%까지 보장하는 상품이 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 3가지 상품 모두 장점에 대비한 단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상품선택이 중요하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주간 증시 포커스

환율·수급 불안...단기매매가 효과적

연휴직후까지 9거래일 연속 하락한 코스피지수는 주 후반 이를 연속 반등해 1950포인트를 회복하며 마감하였다. 미국의 다우지수와 독일, 영국, 프랑스 등 글로벌 선진증시가 사상최고가를 갱신하는 상황에서 코스피지수와 중국등 이머징증시는 연일 실망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선진국증시와 이머징증시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차별화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2007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

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 기업들이 부채와 인력을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지난해부터 성장률이 개선되고 기업이익이 증가하는 국면에 진입하면서 주요기업의 실적회복이 뚜렷해 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을 중심으로한 이머징 기업은 과도한 부채를 줄이지 못하고 원자재가격 하락과 내수시장 위축으로 지속적인 실적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둘째 미국과 유럽에 이어 일본까지 천문학적인 유동성을 확대하면서 증시에 자금을 수혈하고 있지만 중국등 이머징국가는 환율상승우려와 물가상승우려로 긴축적통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이 당분간 변화되지 어렵기 때문에 동조화 가능성 보다 선진증시

와 이머징증시가 각 국가별 상황에 따라 개별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코스피지수에 영향을 크게 주었던 원달러 환율의 방향과 속도가 이번 주에도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6월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맞아 이번 주 외국인의 선물포지션의 방향과 순매매 규모도 5월 코스피지수가 지루하게 형성되었던 좁은 박스권을 벗어나 예상과 달리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요인이므로 지속적인 관찰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주 코스피지수는 선진증시와 이머징증시의 틈새에서 1950에서 2000 포인트의 좁은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1950포인트 아래에서는 지수형(레버리지) ETF를 활용한 단기매매가 유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원화강세국면이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실적이 안정적인 IT, 반도체, 자동차 등 대형주와 수익성개선이 기대되는 유틸리티(전기·가스등 공익사업) 업종에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정 계 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1달러=1000원’ 시대 오나

인 관광객들이 서울 명동에 있는 한 환전소 앞을 지나고 있다.

경제의 두 축인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다. 6년 전에 있었던 ‘1달러=100엔=1000원’ 시대로 돌러놓은 최근 원화 강세로 수출 전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주 말 외국

/연합뉴스

원화 강세

기재부 적극 개입

환율 상승세 반전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원·달러 환율이 소폭 상승했다.

지난 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는 전거래일 증가보다 1.8원 오른 달러당 1024.4원에 거래를 마쳤다.

상승세로 출발한 환율은 “원화 절상이 내수 회복에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이 환율 하락을 용인하는 것처럼 인식돼 하락 반전했다. 그러나 달러당 1020원에 근접하자 기획재정부도 개입을 단행, 이날 오후 들어 환율은 상승세로 돌아섰다. 기재부는 “최근 환율 움직임과 관련해 외국인 자금 유입, 역외 차액결제선물환 거래 등에 있어 투기적 요소가 있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란 메시지를 밝혔다.

다만, 1030원 선에 이어 1020원 선까지 한꺼번에 내려주는 게 부담스러운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당분간 환율 하락 추세는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연합뉴스

신용카드사 대출금리 ‘천차만별’

작년 이용액 28조원...하나SK카드 연 27.9% 최고

신용카드사들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대출(카드론)의 금리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년간 2000만원을 대출할 경우 이자 부담액이 회사별로 최대 100만원 안팎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돼 이용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11일 금융감독원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카드론 이용액은 28조 411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 이용액 24조6840억원에 비해 15% 증가한 것이다. 카드론은 주로 신용등급상 은행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경우에 찾는다. 서민들이 주요 이용자다. 대신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연 6%대에서 최고 28%에 육박한다. 이는 연리 25~29%선인 캐피털사나 저축은행, 30%대인 대부업체보다는 낮지만 5%대인 은행의 신용대출에 비해서는 높은 수치다.

문제는 비슷한 신용등급의 고객에 대해서도 카드사별로 카드론 금리 차이가 적

지 않다는 것이다. 여신금융협회가 최근 공시한 카드론 이자율 현황에 따르면 주요 카드사 가운데 최고 수수료를 가장 높은 곳은 하나SK카드로 연 27.9%에 달했다. 반면 NH농협카드는 22.4%로 양사간 대출금리는 5.5% 포인트 차이가 난다. 2000만원을 1년간 대출받을 경우 부담하는 이자액은 무려 11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셈이다. 카드론 최고이자율은 하나SK카드에 이어 현대카드(27.5%), KB국민카드(26.5%), 신한카드(25.9%), 삼성·롯데카드(23.9%), 우리카드(22.9%), 농협카드(22.4%) 등의 순이었다.

실제 카드론을 받은 고객의 평균 이자율도 현대카드가 19.5%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어 국민카드와 삼성카드 16.2%, 신한카드 16.1%, 롯데카드 15.7%, 농협카드 13.8% 등의 순이었다. 현대카드와 농협카드로부터 실제 대출을 받은 카드론의 평균 이자율 차이도 5.7%에 달했다. /연합뉴스

시내지국

광천	366-8375
광남	222-9440
남부	652-0175
동광	264-2012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문흥	267-4748
백운	673-4698
봉선	675-5530
북광주	525-3761
상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송하	676-6605
신안	512-1732
양산	571-7658
오치	266-7601
오봉	522-7752
우산	512-8116
운천	371-9818
월곡	961-2339
충양	222-1896
중흥	224-6604
진월	673-1600
침단	973-2900
충장	224-8212
치평	376-6511
풍암	682-8112
하남	959-1500
화정	375-9662

지방지사

광산	062)944-0444	순창군	063)653-0444
군산시	063)467-2500	고창군	070-8201-0370
정읍시	063)531-5544	서울보급소	02)313-5962
남원시	063)633-9911		

광주광역시

장성군	394-0400	담양군	383-8116	곡성군	362-8111	구례군	782-4696				
영광군	351-0055	함평군	324-8111	나주시	336-4759(군) 335-5501(시)	화순군	374-4423	순천시	746-8111	광양시	792-8111
무안군	452-8535	목포시	276-9200	영암군	471-1717	장흥군	863-8822	보성군	852-9646(보성) 857-0686(별교)	여수시	692-0997
신안군	278-8111	진도군	543-0100	해남군	537-6767	강진군	434-6830	고흥군	842-2121		
				완도군	554-6677						

독자와 함께 걸은 길 62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 _ 062 227-9600

신문구독 _ 062 220-0551

예향구독 _ 062 220-0550